

“불교음악의 르네상스 반드시 필요하죠”

제1회 불교음악상 대상...안국선원 지휘자 이찬우 씨

“50년전 기독교인이었던 제가 친구의 제안을 받고 부처님오신날 공연에 참여하게 됐고 그것이 인연이 돼 운문 스님을 따라서 대각사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매일 하루에 한 곡씩 가사를 주면 곡을 썼죠. 이제 제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연주자를 섭외해 찬불 음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 1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대상을 받은 이는 부산 안국선원 지휘자 이찬우 씨다. 1962년 경희대 음대 2학년 생이었던 그가 운문 스님을 만나 불교와 인연을 맺고 그렇게 작곡을 시작했다.

엄숙한 절집 분위기도 향내도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기독교인 음대생이 대학 생활 내내 머리를 쥐고 절에서 살며 찬불가를 작곡했던 이유는 뭘까? “같은 과 친구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부처님오신날 동국대 축제에서 찬불가를 만들어 발표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음대생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도 기독교였지만 친구 부탁을 받고 반주를 했어요. 당시 친구를 지도하던 스님이 운문 스님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스님을 알게 됐어요. 이후 스님이 찬불가 작곡을 부탁했고 제가 민요풍의 ‘나는 나는 불교 꽃’이라는 노래를 작곡해 보내주었어요”

당시 친구는 서울 대각사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던 운문 스님과 함께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었는데 가장 형편상 계속 그럴만 할 수가 없었다. 이후 이 씨는 친구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각사에서 절 생활을 하며 찬불가를 작곡하기 시작한다.

“당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죠. 운문 스님께서 찬불가 보급에 굉장한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과 함께 대각사 연화어린이합창단 단장으로 찬불가 보급을 시작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이 현재도 널리 불리고 있는 청법가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사자후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대자비를 베푸사 범을 설하옵소서’

이광수 작사 이찬우 작곡의 이 곡이 만들어진 과정도 재미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 날이었어요. 대각사에서 낮잠 잘 곳을 찾아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법당에 몰래 들어가 구석에서 누웠다가 한쪽을 보니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었는데 거기에 이광수의 청법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곡을 부친 것이 현재의 청법가죠. 당시엔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였어요.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이들 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불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죠”

하지만 현재 청법가는 최초 만들어진 당시와 다르게 가사가 변형됐다고 한다. ‘옛



부산 안국선원 지휘자 이찬우 씨는 지난 50년 동안 청법가, 나는 불교꽃, 석굴암 부처님, 애착을 끊으라, 만자의 노래, 교성곡 ‘사월초파일’ 등 500여곡의 찬불가를 작곡했다.

연화어린이합창단 단장 시작으로 50년 동안 찬불가 보급 매진 청법가 등 500여 곡 작곡 최고의 찬불음반 제작이 서원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바로 이 대목에서 ‘이어서’의 작곡 당시 가사는 ‘잇도록’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으니 인연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잇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이어서로 바뀌어서 불러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前총무원장 故 지관 스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시작된 이 씨의 찬불가 작곡은 지난 50년 동안 청법가, 나는 불교꽃, 석굴암 부처님, 애착을 끊으라, 만자의 노래, 교성곡 ‘사월초파일’ 등 500여곡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조용하고도 엄숙한 절에서 반주하고 찬불가를 부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격려를 해주신 스님들도 많았지만 절에서 노래를 부르면 스님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운문 스님과 대각사에서 나와 삼각산·인왕산 자락의 작은 암자들, 개운사 등을 돌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고생스럽기도 했지요. 학교 가려면 산길 걷고 버스타고 전철 갈아타고 해야 했는데도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서는 마땅히 불교계에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해 가톨릭계열의 단체에서 지휘를 하기도 했다. “정말 갈증이 많았어요. 생계를 이어야 하니 불교 비블고를 따질 수가 없었죠. 당시엔 기독교 계통에서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스님들이 찬불가라고 하면 그대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제가 그때 스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20년 후에는 저를 찾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20년 이 지나니 정말 찬불가가 활성화되

고 이후 그것이 산사음악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게 되었죠”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불교계 찬불가의 현실은 척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에 대해 불교 음악인들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많은 찬불가가 있지만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요. 산사음악회에서도 찬불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것이 대중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좀더 노력을 해야지요.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고 불러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불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죠. 불교 음악의 르네상스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는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곡들이 많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서원은 조수미 같은 세계적인 가수와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한 음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아직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0년을 불교 음악에 바쳐온 거장의 서원은 그렇게 최고의 찬불 음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서원이 그렇게 현실화 되기를 기도해본다.

이영범 학예연구사는 “유물 대부분은 표면에 이물질과 녹이 덮여 있어 형태와 질감을 잃어버렸다. 이 유물들이 긴 시간의 보존처리 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손상된 문화재가 보존과학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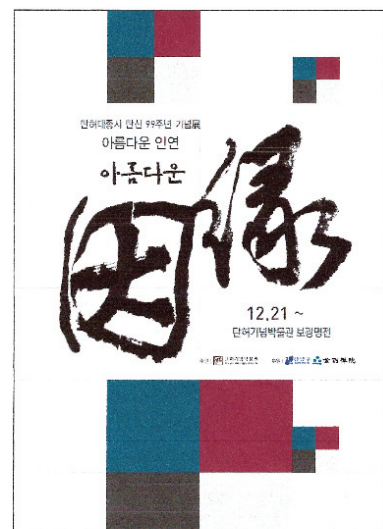
탄허 스님 탄생 99주년 기획전

‘아름다운 인연’...탄허박물관서

탄허 스님 탄생 99주년을 맞아 탄허기념박물관이 12월 29일까지 기획전 ‘아름다운 인연(因緣)’을 개최한다. 서울시 사립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일환으로 열리는 이 전시는 탄허 스님의 유물 50여점을 비롯해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가들의 작품 20여점을 전시한다.

탄허기념박물관 측은 “2011년 ‘탄허대종사의 흔적을 찾아서’展에 이은 탄허 스님 시리즈로 스님의 전인적 교육관을 통한 스님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2012년 탄생 99주년을 맞아 스님의 유물을 통해 불교문화의 발전 취와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탄허 스님에서 탄허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으로 이어지는 근현대 불교사의 인연도 함께 되짚어 본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는 1부-열반, 2부-역경불사, 3부-입산 및 출가, 4부-재해석 그리고 확장 순으로 이어진다. 주요 전시유물로는 스님의 동방, 법문, 사적비문 등이며, 불교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02)445-8486 정혜숙 기자

‘보존과학이 되살린 문화재’展

국립전주박물관...1월 6일까지

과학의 발전과 문화재의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보존과학이 되살린 문화재’展(展)을 2013년 1월 6일까지 박물관 본관 2층에서 연다.

전시품은 박물관에서 2012년도에 보존처리를 마친 남원 실상사 조선 청동저울추, 순창 고원리 고려 납 저울추, 남원 월산리 출토 가야 토기 등 유물을 선별해 마련했다.

이밖에도 남원 월산리 출토 가야 토기와 익산 모현동 무덤출토 조선시대 철제바늘, 철제가위, 청동순가락, 청동젓가락, 철제관정도 함께 전시된다.

이영범 학예연구사는 “유물 대부분

은 표면에 이물질과 녹이 덮여 있어 형태와 질감을 잃어버렸다. 이 유물들이 긴 시간의 보존처리 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손상된 문화재가 보존과학을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청동추 처리 전 (남원 실상사 출토)

국립중앙박물관...유리 삼천년의 이야기

특별프로그램 마련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특별전시 ‘유리, 삼천 년의 이야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느끼는 유리, 삼천 년의 이야기는 특별전시와 연계해 2013년 1월 23일과 2월 13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유리전문가 이인숙 관장(한성백제박물관)을 초대한다.

가족 대상의 유리 만들기는 2013년 1월 26일, 2월 16일에 유리 장식품과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2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도 전시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용 스스로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다. 특별전시에 대한 문예와 해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풀어보면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02)2077-9296



이찬우 씨는 지난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 1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 동계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2012년 동계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거사공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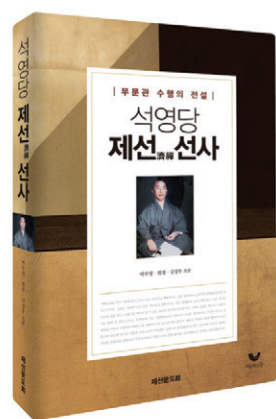
- 일 시 : 2012년 12월 28일 (금) 오후 8시부터 2013년 1월 1일 (수) 오전 12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과 면담
- 주 제 : 예불송 반야심경 선문염송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 나와 200미터(3분 정도 거리) 커핀그루나무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일 2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8751-6611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를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합장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원철·김성우 공저
신국판·양장 1쪽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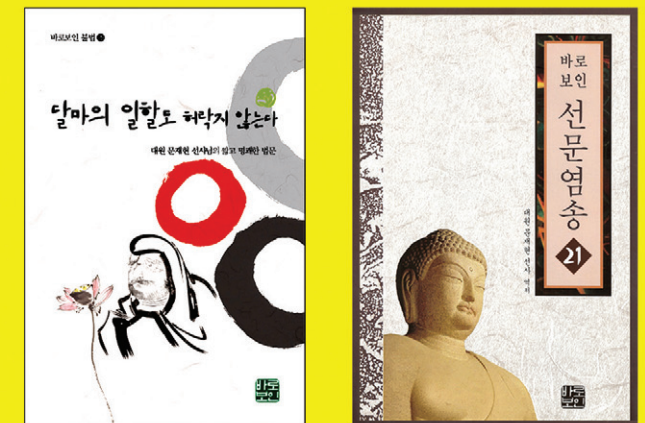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동분을 밝혀준다.

비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